

일본 가정의 휘발유 · 등유 소비실태

아래 내용은 연료유지신문에 연재된 내용을 발췌 · 편집한 내용이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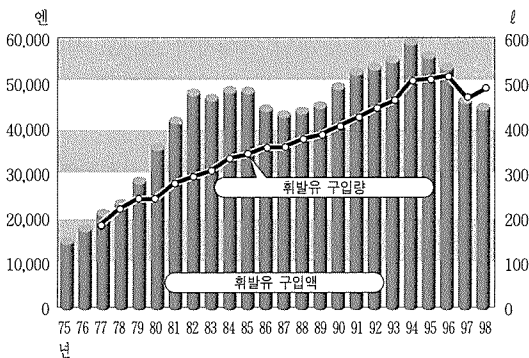
일본 총무청은 '98년 가계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음은 그 내용중 휘발유 · 등유에 대한 일반가정의 소비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1. 휘발유-구입량 증가, 구입액 감소

'98년도의 세대상 휘발유 구입액은 44,332엔, 전년대비 2,109엔(4.5%) 감소했다. '94년도를 피크로 4년 연속 감소해 이 기간동안 거의 4분의 1(14,422엔) 감소한 것이다. 이것은 '86년도의 구입액과 같은 수준이다.

구입량은 479.4 l로 월 40 l 정도이다. '97년의 461.3 l에서 18 l 남짓 (3.9%) 증가한 것이다. '97년도에는 17년만에 감소했지만 '98년은 증가했다.

<표1> 세대당 연간 휘발유 구입액과 구입량



구입량이 증가했는데도 구입액이 감소한 것은 휘발유 시세하락에 의한 것이 크다. 구입단가를 보면 '98년은 리터당 92.47엔이다. 이것은 '97년의 100.68엔에 비하면 8.21엔(8.2%) 하락한 것이다. 구입단가 하락은 걸프위 기 직후인 '91년(125.47엔)을 피크로 7년 연속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무려 33엔이나 하락한 것이다. 총무청이 이 부문 통계 작업을 시작한 이래 리터당 100엔 밑으로 떨어진 적도 없는데다가 1년간 하락폭으로서는 과거 7년간 최대폭이다.

2. 등유-구입량 감소, 구입단가 하락

'98년의 세대당 등유구입액은 13,180엔, 전년대비 1,938엔(12.8%)가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구입물량은 연간 305.4 l로 2년 연속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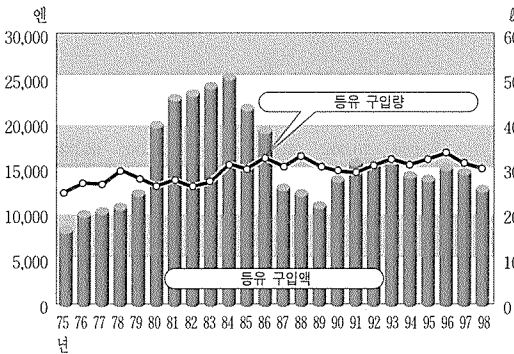
등유구입금액 대폭 하락의 원인은 구입물량이 감소한 데다 시세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구입단가를 보면 '98년은 리터당 43.15엔이다. 이것은 전년대비 5.22엔(10.8%)이나 하락한 수치인데 하락은 '95년 이래 3년만의 일이다. 리터당 43엔대라는 가격은 '89년의 리터당 37.28엔 이래 가장 싼 수준이다.

세대당 등유구입물량은 '96년의 337.4 l가 피크였다. 이에 비해 구입금액은 '84년의 25,454엔이 피크이다. '98년의 구입금액은 이 절반 정도인데 구입단가로 보면 '82년에는 제2차석유위기로 원유가격이 대폭 상승한 것

을 반영해서 리터당 92.11엔까지 상승했었다.

이것이 '89년에 리터당 37.28엔까지 하락했다가 걸프위기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91년에서 '93년에 걸쳐 리터당 50엔대까지 회복했었다.

〈표2〉 세대당 연간 등유 구입액과 구입량



3. 휘발유-구입가격 하락, 구입량 증가

'98년의 세대당 소비지출은 연간 393만 8,235엔으로 전년대비 61,524엔(1.5%)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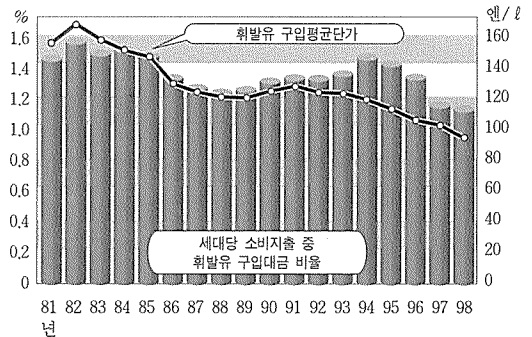
이에 비해 '98년의 연간 휘발유 구입금액은 44,332엔이다.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3%로 전년의 1.16%에서 0.03%포인트 떨어져 휘발유가격의 가계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94년의 1.47%가 피크였다. 이 시기는 특석법 폐지 논의가 시작된 시기로 국내의 휘발유시세가 계속 하락해 휘발유가격의 가계비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년 연속 감소했다. 이 기간에 가계비 부담은 23%나 줄어든다.

세대당 연간 휘발유구입량은 479.4 l로 전년대비 18.1 l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액이 줄어 가계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휘발유가격 하락 때문이다. 전년은 금액 감소·물량 감소의 이중고를 겪었지만 주요소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98년에 물량이 늘었다는 것이다. 휘발유 구입 단가를 보면 92.47엔으로 전년의 100.60엔보다 8.21엔(8.2%)이나 하락했다.

휘발유의 연간 구입액 44,332엔은 1세대당 식료품 구입액(약102.7만엔)의 4.3%에 해당해 곡류(45,475엔)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자동차유지비(144,343엔)의 30.7%를 차지한다.

〈표3〉 세대당 휘발유 구입 추이



4. 등유-광열비중 비율은 5%

'98년의 세대당 등유구입액은 연간 13,180엔으로 전년대비 1,938엔(12.8%) 감소해 2년 연속 감소했다.

등유구입금액이 가계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3%로 전년대비 0.05포인트 떨어졌다. 떨어진 것은 2년 연속이지만 0.33%는 '89년의 0.32% 다음 가는 낮은 수준으로 휘발유만큼은 아니지만 등유구입비의 가계비 부담 경감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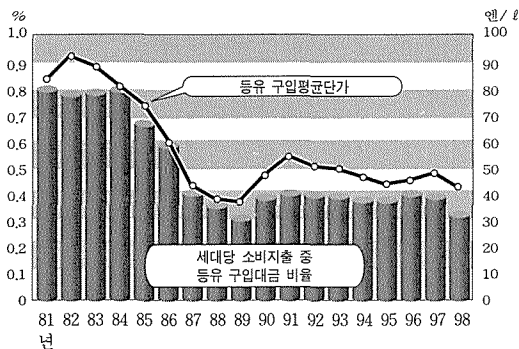
등유구입물량이 2년 연속 감소해 '98년은 연간 305.4 l로 전년대비 7.1 l(2.3%) 줄었다. 가계비 부담의 경감은 물량감소와 시세하락이 주요인이다. 구입단가를 보면 리터당 43.20엔으로 전년대비 5.20엔(10.7%) 하락했다. 단가 역시 '8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98년의 광열·수도비는 25만 2,358엔으로 그 중 등유 구입비는 겨우 5.2%를 차지할 뿐이다. 전년의 6%보다 떨어진 수치이다. 광열·수도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기료로 44.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가스비가 28.5%를 차지한다. 그 중 54.4%를 차지하는 도시가스구입액은 39,095엔으로 등유구입액의 거의 3배이다.

프로판가스 구입액은 32,815엔으로 등유의 2.5배이다.

'76년에 등유구입비는 광열·수도비의 10.9%를 차지했으나 제2차석유위기 직후인 '80년에는 12.7%까지 확대되고 등유구입비가 가장 많았던 '84년(25,454엔)에는 12.1%로 12%대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계속 떨어졌다.

〈표4〉 세대당 등유 구입-추이



5. 휘발유-주요 구입층은 청·중년층

'98년의 휘발유 구입상황을 연령별로 보면 우선 구입액에서는 24세 이하가 연간 6만엔을 넘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44세층으로 59,000엔 가까운 금액을 지불했다. 기타 연령층에서는 54세 이하까지 거의 비슷했다. 55세 이상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소했다. 65세 이상의 휘발유 구입액은 23,639엔으로 24세 이하 연령층 구입액의 3분의 1 정도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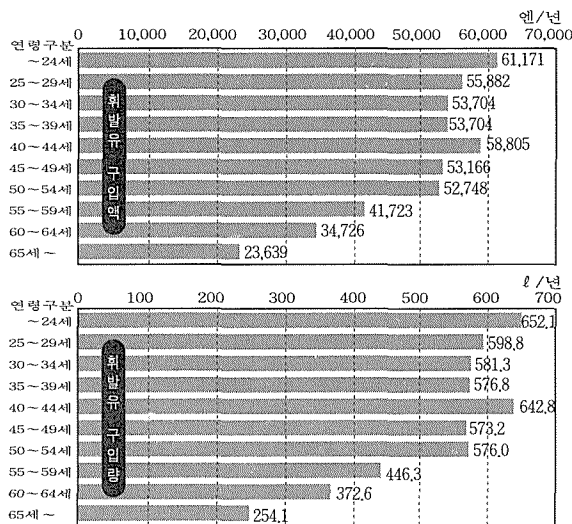
구입액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35~39세' '50~54세' '55세~59세'의 연령층에서는 5천엔 이상 감소했고 '35~39세'의 연령층에서는 5,643엔이나 감소했다. 그렇지만, '25~29세'에서는 2,191엔, '45~49세'에서는 1,900엔, '65세 이상'에서는 699엔 늘었다.

이들 연령층에서 구입액이 늘어난 것은 구입량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25~29세'에서는 68 l (10.2%), '45~49세'에서는 62 l (9.8%), '65세 이상'에서는 28 l (9.8%) 증가했다.

'35~39세' '55~59세'에서는 모두 14 l 정도 구입량이 줄었다.

구입단가를 보면 '40~44세'가 가장 싼 91.48엔/l. 전년대비 8.50엔 떨어졌는데, '50~54세'에서는 91.57엔으로 전년대비 10.03엔 떨어졌다. 30세부터 54세에 걸쳐서는 91엔대, 92엔대에서 구입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것이 청년층과 고연령층이다. 24세 이하에서는 93.80엔에 달했다.

〈표5〉 연령별 휘발유 구입상황



6. 등유-고연령층일수록 높은 부담

'98년의 등유구입상황을 연령별로 보면 우선 구입액에서는 최대가 '65세 이상'으로 14,983엔. 그 다음으로 45세 이상이 14,000엔을 넘어 거의 비슷했다. 가장 금액이 적은 '24세 이하'는 5,181엔으로 '65세 이상'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24세 이하'만 늘었고 그 외는 감소했는데 '60~64세'에서는 4,692엔(24.7%) 감소했고 '50~54세'에서는 3,546엔(20.1%)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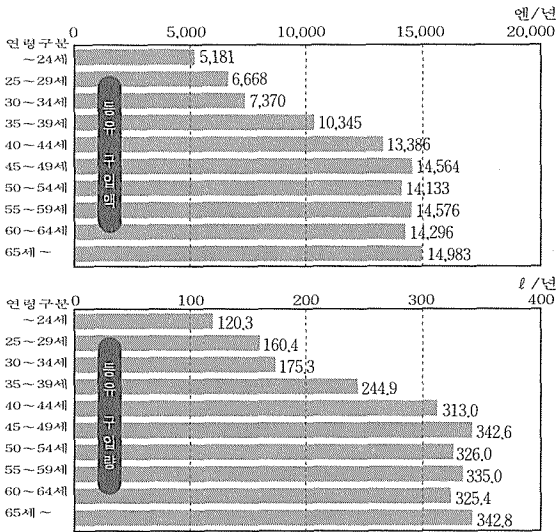
구입량은 40세 이상이 연간 300 l를 넘었다. 최대는 '65세 이상' 342.8 l, 다음으로 '45~49세'가 342.6 l이다. 그렇지만 전년에 비하면 '60~64세'가 61 l

(15.9%), '50~54세'가 40 l (10.9%)나 감소했고 55~59세 '65세 이상'의 연령층도 구입량이 감소해 고연령층의 등유 구입이 감소하고 있다. 가장 늘어난 연령층은 '45~49세'로 23 l (6.2%) 증가했다.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등유구입액의 비율을 보면 65세 이상'이 0.47%를 차지해 가장 높은 가계비 부담률을 기록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담률도 상승해 '24세 이하'는 0.19% 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볼 때 등유시장은 고연령층 중심의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구입단가는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리터당 43엔대이다. 가장 싸게 구입하는 층은 '25~29세'로 41.58엔/l. '24세 이하'는 43엔대, 30세부터 49세까지의 연령층은 42엔대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25~29세' '35~39세'의 구입단가 하락이 6엔을 넘었다.

〈표6〉 연령별 등유 구입상황



7. 휘발유-중간소득층, 휘발유구입량 감소

휘발유 구입상황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구입액이나 구입량 모두 증가경향을 보였다. 구입액은 연간 소득이 1,004만엔 이상의 고소득층이 56,096엔을 휘발유 구입대금으로 지불했다. 이 수치는 405만엔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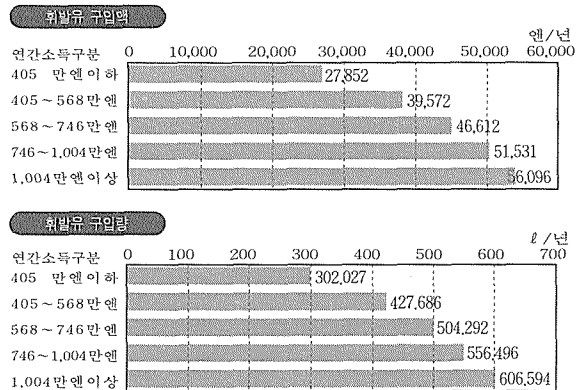
저소득층의 2배가 넘는다.

전년대비 가장 감소한 것은 568만~746만엔의 중간소득층. 46,612엔으로 전년대비 5,007엔(9.7%)이나 감소했고 다음으로 감소액이 큰 것이 746만~1,004만엔의 소득층으로 전년대비 2,750엔(5.1%) 감소했다. 405만~568만엔의 소득층도 2,515엔(6.0%) 감소했다. 반대로 405만엔 이하 저소득층의 구입액은 27,852엔으로 510엔(1.9%) 증가했다.

휘발유시세가 하락해 구입액이 감소한 것은 당연한데 저소득층의 구입액이 늘어난 것은 구입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405만엔 이하 저소득층의 '98년 구입량은 302 l로 전년대비 33 l (12.3%) 늘었다.

저소득층의 구입량 증가를 웃도는 것이 1,004만엔 이상의 고소득층이다. 연간 606.6 l를 구입해 405만엔 이하 저소득층의 2배가 넘는다. 전년대비 39.3 l (6.9%) 늘어 600 l대를 넘었다.

〈표7〉 연간 소득별 휘발유 구입상황(98)



구입량이 줄어든 것은 568만~746만엔의 소득층. 504.3 l로 9.2 l (1.8%) 줄었다. 중간소득층의 소비지출 감소가 다른 소득층에 비해 큰데 그 배경에는 불황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그에 따른 가계재정 긴축 때문인 듯하다.

구입단가는 모든 소득층이 리터당 92엔대. 가장 싸게

구입한 층은 405만엔 이하 저소득층으로 리터당 92.22엔. 전년은 가장 높은 단가였지만 리터당 9.44엔 떨어졌다. 1,004만엔 이상의 고소득층은 리터당 92.48엔으로 전년보다 7.77엔 떨어졌다.

8. 등유·가계부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2배

등유의 소득층별 구입상황을 보면 휘발유 만큼 뚜렷이 구분되지는 않는다. 비교적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구입량이 많은 경향에 있다.

구입액에서는 1,004만엔 이상의 고소득층이 연간 13,976엔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46만~1,004만엔의 소득층이 13,750엔, 405만엔 이하 저소득층이 13,209엔. 이 3개 소득층이 모두 13,000엔대를 넘었다.

전년대비 가장 감소한 층은 568만~746만엔의 소득층. 3,988엔(24.3%)이나 감소해 전년은 가장 금액이 많았던 층이었으나, '98년은 12,390엔으로 구입액이 가장 적은 소득층이 되었다.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등유구입액의 비율에서는 당연히 저소득층에서 높고 고소득층에서 낮다. 405만엔 이하는 0.52%, 1,004만엔 이상은 0.24%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은 고소득층의 2배.

구입량으로 보면 746만~1,004만엔의 소득층이 가장 많아 연간 323.6 l의 등유를 구입했다. 다음으로 1,004만엔 이상의 고소득층이 320.1 l, 405만엔 이하의 저소득층이 304.9 l. 3개 소득층이 모두 300 l를 넘었는데 가장 적은 층은 568만~746만엔의 중간소득층이었다.

전년대비 568만~746만엔의 소득층이 54.7 l (16.1%)나 감소했고 다음으로 1,004만엔 이상의 고소득층이 2 l 감소했다.

구입단가로는 746만~1,004만엔의 소득층이 가장 싸 리터당 42.49엔. 가장 높은 층이 1,004만엔 이상으로 리터당 43.66엔. 전년대비 하락폭이 가장 컸던 층은 746만~1,004만엔의 소득층으로 리터당 6.19엔, 반대로 하락폭이 가장 작았던 층은 568만~746만엔의 중간소득층으로 리터당 4.75엔이다.

〈표8〉 연간수입별 등유 구입상황(98)

연간수입구분	0	5,000	10,000	15,000	엔/년
405 만엔 이하				13,209	
405 ~ 568 만엔				12,574	
568 ~ 746 만엔				12,390	
746 ~ 1,004 만엔				13,750	
1,004 만엔 이상				13,976	

연간수입구분	0	100	200	300	l/년
405 만엔 이하				304.919	
405 ~ 568 만엔				292.533	
568 ~ 746 만엔				286.056	
746 ~ 1,004 만엔				323.620	
1,004 만엔 이상				320.086	

9. 휘발유·최대 구입시기는 8월

'98년의 세대당 휘발유구입상황을 월별로 보면 8월이 최대. 구입금액, 구입량 모두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형 연휴가 있는 5월,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12월 순이다.

구입액으로는 8월에만 4,000엔을 넘는다. 세대당 4,339엔의 휘발유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362엔(7.7%) 감소한 수치이다. 구입량으로는 48.4 l로 작년보다 1.4 l 늘어 50 l에 육박한다.

월간 구입량이 40 l를 넘는 월은 5월(42.4 l로 전년대비 4.4 l 증가)과 12월(41.8 l로 0.5 l 감소)인데 전년에 비해 5월의 증가량이 가장 컸다. 증가량으로 보면 1월 4.1 l, 4월 2.5 l, 2월 2 l가 늘었다. 반대로 9월은 2 l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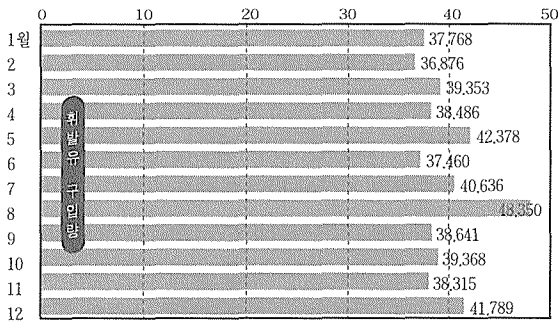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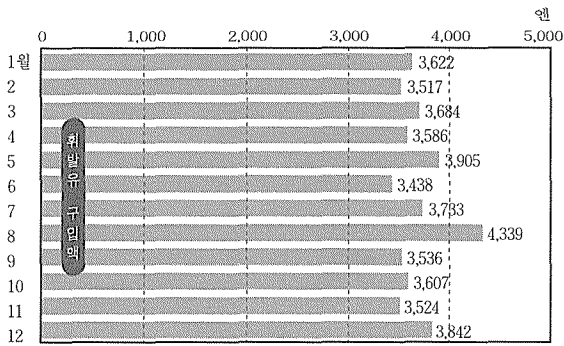
구입액은 구입량이 감소해 9월에 518엔 줄어 3,536엔을 기록했다. 구입액 감소는 9월이 최대이고 다음으로는 8월의 362엔, 12월의 282엔, 3월의 219엔 순이다. 5월은 물량 증가가 컸기 때문에 감소액은 6엔에 그쳤고 역시 구입량이 늘어난 1월은 159엔으로 구입액이 늘었다.

월별 구입단가를 보면 가장 높은 달이 1월로 리터당 95.90엔(전년대비 7.03엔 하락). 3월에는 93.61엔(동 9.81엔 하락), 5월에는 92.15엔(동 10.74엔 하락), 6월에는 91.78엔(동 9.88엔 하락)으로 계속 내렸고 8월에는 89.74엔(동 10.44엔 하락)으로 결국 리터당 90엔 밑으로

떨어졌다.

9월 이후는 92엔대를 회복했는데 이것은 주요 원매가 감소이나 시중 매수에 나서 시장 정비를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9〉 월별 휘발유 구입상황(98)



10. 등유-최대 구입시기는 1월

'98년의 월별 등유구입상황을 보면 최대는 역시 1월이다. 다음으로 2월, 12월, 3월 순이다. 구입액으로 보면 1월의 세대당 등유구입액은 2,566엔. 이것은 전년대비 9엔 감소한 수치인데 구입단가가 감소했는데도 구입액 감소가 소폭에 그친 것은 구입량 증가에 기인한다. 1월의 구입량은 57ℓ로 전년대비 4ℓ 늘었다.

2월의 구입금액은 2,370엔, 12월이 2,048엔. 1월과 합하면 3개월 모두 2천엔을 넘었는데, 전년대비 2월이 423엔, 12월이 425엔 감소해 위 2개월의 감소액이 가장 컸다. 3월의 감소액은 156엔으로 1,894엔, 11월은 65엔 감

소한 1,161엔, 4월은 175엔 감소한 982엔이다.

여름시장은 등유구입액이 감소하지만 7월 271엔(전년대비 75엔 감소), 8월 245엔(전년대비 91엔 감소), 9월 264엔(전년대비 104엔 감소)으로 금액이 적은 것에 비해 감소율은 크다.

구입량을 보면 1월의 57ℓ에 이어 큰 것이 2월의 53ℓ인데 12월의 51.7ℓ와 함께 위 3개월이 50ℓ를 넘었다.

전년에 비해 1월은 증가했지만 2월은 3ℓ 감소, 12월은 2.3ℓ 감소했다. 월별로 전년대비 늘어난 월은 1.9ℓ 증가한 3월(43.2ℓ), 3ℓ 늘어난 11월(29.4ℓ)로 3개월이다.

구입단가로 보면 1월이 43.05엔(전년대비 5.54엔 하락), 2월이 리터당 44.74엔(동 5.15엔 하락)으로 리터당 43~44엔대로 추이했었는데 성수기로 들어가는 10월에는 41.59엔(동 6.03엔 하락), 11월에는 39.48엔(동 6.88엔 하락)으로 결국 리터당 40엔대 밑으로 떨어졌다. ☹

〈표10〉 월별 등유 구입상황(98)

